

## 人間學의 對象과 그本質的 制限 (4)

金基錫

우리들은 哲學이 人間의 學이 되어야 하고 또 人間에 대한 根源的 理解를 그 課題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 人間의 存在란 엇던 것일까. 우리들에게는 진실로 만흔 것들이 주어진다. 人間, 自然, 存在, 無, 歷史, 社會, 文化.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신에 대한 理解를 우리들에게 要求하는 모양으로 부단히 무어라고 속삭이다시피 우리들에게 대어든다. 哲學하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어만흔** 『일감』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人間의 存在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 全體에 벗치어 또는 重要的 聯關에 잇서 □明되는 것이 아닐까.

人間의 存在 및 그 根本理念. 人間은 한 개 存在이면서 자기를 存在의 世界속에서 發見한다. 存在. 이 存在란 것을 사람들은 여러 번 또 여러 모양으로 무러 내려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이 存在에 대한 理解는 依然히 한 개 久遠 問題로 남아 잇지 안흔가.

存在는 먼저 時間에 잇어서 주어지지 안혀서는 안된다. 存在는 嚴密한 意味에 잇어서 본대 時間的 存在가 되어야 한다. 時間은 一切의 存在를 運動生成에로 이끄는 엇던 潮流 가튼 것이 아닐까. 時間을 버서나는 存在란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는 업다. 時間을 버서나서 久遠한 實體를 지니는 이른바 永遠한 存在란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는업다. 이 永遠한 存在란 것은 存在의 時間性을 깊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한 개 그릇된 想定 또는 觀念에 지나지 안는다.

現實的 存在는 모두 時間的인, 따라서 運動的인 存在가 되어야 한다. 人間이 存在인 한에서 人間은 먼저 時間性의 世界에 싸히지 안혀서는 안된다. 時間性의 世界 속에서 다른 만흔 存在로 더부러 엇던 同一한 運命에 억매이면서 그 자신 부단한 運動, [遷變] 을 經過하지 안혀서는 안된다.

存在는 모도 時間에 있어서 주어진다. 이 한 개의 見解는 진실로 存在에 대한 根源的 理解에 나선다. 그러나 存在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보라. 이로 가를 수 업는 여러 갈래의 秩序에 있어서 버러짐을 보라. 그리고 이 하구 만흔 存在 및 그 秩序가 한 순간 한 순간 자기를 부단히 創造또 破壞하는, 이리하여 無限한 아하 진실로 無限한 轉變을 가져 오는 한 개 巨大한 生成의 世界가 버러짐을 보라. 여기서 우리들은 가튼 時間性에 있어서 주어지는 存在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으로 버러서게 되는 根本事實을 省察해야 하는 새로운 途程에 드러선다.

存在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存在는 時間性과 구별되는 다른 한 개의 性格을 가지지 안혀서는 안된다. 이 時間性과 구별되는 性格을 우리들은 限定性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存在는 모도 자기를 限定하지 안혀서는 안된다. 자기를 限定하지 안코 잇는 存在가 잇는가. 자기를 다른 存在로부터 구별하지 안코 잇는 存在가 잇는가. 存在는 두고, 위선 存在의 形式 또는 性格인 時間을 들여 보라. 이 時間부터도 자기를 限定하는 데서, 例하면 자기를 存在나 無로부터 구별하는 데서 비로소 한 개 時間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가.

存在는 이 世界의 根本實在로 내여 세우는 精神이니, 物質이니는 모도 생각된 存在이요. 現實的인 存在는 時間에 있어서 自己를 부단히 限定하면서 주어지는 個物의 意味를 가지지 안혀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人間이 다른 存在와 한가지로 본대 時間的 存在라는것을 말했다.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한에서 그것은 存在로서의 人間은 아니다. 그런데 存在는 다시 그 자신을 부단히 엇던 것으로 限定하는데서 비로소 한 개 現實的인 存在가 됨을 보았다.